









많은 사찰이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법당 뒤편에 의자를 설치하는 사례는 무척 흔하다. 경내에 수유실을 설치하거나 점자 경전을 비치하고 수화공연을 개최하는 사찰도 있다.

사찰은 약자에 철벽?…작은 관심이 접근성 높여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찰 접근성 문제는 오랜 세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불교계 숙제다. 사찰 진입부터 법당 참배와 법회 동참, 편의시설까지 사회적 약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사찰 시설 보수나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관심과 적은 비용만으로 충분히 사회적 약자의 사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사회적 약자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인 실천을 하며 벽이 없는 '무장애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사찰과 단체들을 만나본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법회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청각 외에는 신체적 기능이 정상으로 거동의 불편함이 적다. 때문에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적이다. 이에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안내자가 있다면 사찰 순례와 신행에도 적극 동참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 장애인 포교 및 신행생활을 이끌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서울·경기지역에 한해 수화 통역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화원은 매년 연말 진행하는 '수어사랑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함께 진행한다.

80년대부터 수어를 배우며 청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어온 이사장 해성 스님(서울 광림사 주지)은 "불자 청각장애인들에게 스님의 법문을 수화통역으로 접하는 순간이 얼마나 큰 감동일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찰이 지역 내 청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해 수어를 제공한다면 청각장애인들의 사찰 신행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들은 혼자서도 사찰에 마음대로 드나들지만 봉사자들의 통역이 있어야만 법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조계사는 장애인전법팀 원심회를 37년간 지원하며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길을 닦고 있다. 청각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수어 법문 제공, 수어 영상 제작, 점자 경전 제작 등을 통해 신체적 제약으로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전법팀은 매주 일요일 수어 법회를 개최해 청각 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의식집 비치

서울 광림사는 점자로 편찬된 불교 의식집과 경전 CD를 비치해 두고 인연을 맺은 시각장애인의 신행생활을 돕는다.

또 자체 제작한 점자 불교의식집과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등 경전을 점자책과 CD로 제작해 요청하는 곳에 발송하고 있다.

광림사는 20여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동국대 전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법사로 참석해 함께 〈금강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

법산 스님은 2019년, 선시집 〈나는 누구인가〉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 법회 법사이자, 점자 불교서적 발간을 지원하는 등 장애 불자들의 든든한 스승으로 오래 인연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입식 법당으로 어르신 무릎 보호

현대적 건축 양식으로 한 해를 빛낸 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하는 '대구건축비엔날레'에서 2021년 건축상 일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청수사**의 대웅전은 좌식과 입식이 함께한다.

1967년 조그만 주택에서 시작된 대구 청수사는 2019년 1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노후한 법당과 요사채를 철거하고 중창불사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 3개 동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로 다시 건립됐다. 청수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심 사찰의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법당을 지으며 입식 법당을 선택했다. 신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좌식으로 앉을 때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앞쪽에는 절을 할 수 있는 좌식 공간을 뒀다.

청수사 신도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1층 카페와 2층 법당을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다. 청수사가 운영하는 1층 청수67카페 옆 야외공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를 마련, 어린 자녀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서울 불광사는 지하 4층 보광당을 입식과 좌식으로 꾸몄다. 2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보광당은 불광사의 행사 대부분이 이뤄지는 곳이다. 불광사의 큰 행사를 보광당에서 하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참석한다. 이에 불광사는 노약자나 다리가 불편한 불자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 법회를 볼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해 정암사도 2018년부터 대웅전인 삼계주전(三界主殿)에 장의자를 설치하고 노약자들의 법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웃종교 '무장애' 사례

성당 '유아실'과 '아이를 위한 자리'

서울대교구 A성당 일요 미사 시간. 성당 본당 뒤편에 위치한 유아실은 여느 본당과 마찬가지로 통유리가 설치돼 있다. 유아실이 성당 뒤에 위치한 만큼 미사 시간에는 신자들의 뒷모습만 보인다. 미사 진행 상황은 스피커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미사에 동참한다. 유아실은 아이들이 울거나 간식을 먹일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내부에 마련된 수유실 덕분에 부모들은 미사 중에도 조용히 수유를 할 수 있다.

유아실에서 만난 한 신도는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미사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성당이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덕분"이라고 말했다. 젊은 부부가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에 자연스럽게 나올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아실이 한 몫 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아실이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아실에 있다 보면 아이들과 부모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미사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또 전문가들 한쪽에서는 유아실 분위기에만 익숙해진 유아는 성당에 적응하기 어렵다고도 말한다. 이에 유아실을 없애고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보는 성당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대신 성당 입구 근처에 '아기와 부모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미사 중 심하게 우는 아이를 잠시 달랠 수 있도록 성당 입구에 작은 방을 마련한 곳도 있다. 어찌됐건, 유아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A성당의 한 신도는 "우는 소리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변에 폐를 끼칠 것 같아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영유아를 위한 성당의 다양한 배려로 아이와 함께 성당에 오는 부담감이 줄면서 미사 참여도 늘었다"면서 "아기와 부모가 편하게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도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아이와 부모가 성당 본당 뒤편에 마련된 유아실에서 미사를 보고 있다.

